사계절 푸르른 양잔디와 함께…
HAMPYEONG DYNASTY COUNTRY CLUB
주중 비회원 예약 및 5인 PLAY 가능
전남 함평군 학교면 곡창리 산6-21
TEL.(061)320-7800 예약문의 (061)320-7700,7777

광주체고 이애라 한국주니어新 '번쩍'

75kg급 인상 101kg 들어
전국 춘계여자역도 고등부

여고생 역사 이애라(광주체고 3·사진)가 3관왕을 차지하며 역도 한국 주니어신기록을 4년만에 갈아치웠다.

이애라는 22일 강진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제18회 전국춘계여자역도대회 고등부 75kg급에서 인상 101kg을 들어올려 한국주니어(20세 이하)신기록을 작성했다.

기존 기록은 이연화(제주도청)가 2003년 9월 아시아선수권대회에서 작성한 100kg이다.

또한 이애라는 용상에서 126kg을 들어 대회신기록과 학생신기록을 작성했으며 합계 227kg을 기록하며 역시 대회신기록 2개와 학생신기록 2개를 작성했다.

양산중학교 1학년때 바벨을 잡은 이애라는 현재까지 줄곧 국내 최고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

이애라는 지난 2004년 제33회 소년체전 63kg급 3관왕, 2004년 제6회 전국중학부 역도 경기대회 75kg급 3관왕, 2005년 제86회 전국체육대회 75kg급 3관왕(대회신기록및 학생신기록), 2006년 제17회 전국춘계여자역도경기대회 75kg급에서 학생신기록 3개를 작성하며 3관왕을 차지, 한국 역도의 차세대 에이스로 자리잡았다.

또한 이애라는 이번대회에서 총 14개의 신기록(대회신, 학생신)을 수립, 고등부 최우수선수로 뽑히는 영광을 안았다.

고등부 75kg 이상급에서는 이회솔(상임여고)이 인상 100kg에 용상 126kg까지 총 226kg를 들어 우승을 차지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찬호 방출 위기"

뉴욕 언론 '뉴스데이' 보도
5선발 경쟁서 '영건'에 밀려

뉴욕 언론이 미국프로야구 뉴욕 메츠가 박찬호(34)를 방출할 수도 있다고 보도해 박찬호의 앞길이 안갯속으로 파묻히고 있다.

뉴욕 지역 일간지 '뉴스 데이'는 22일(한국시간) 인터넷판에서 마이크 펠프리(23)가 박찬호를 비롯한 경쟁자들을 따돌리고 5선발 다툼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전한 뒤 메츠 구단이 박찬호를 웨이버 방식으로 방출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웨이버란 선수를 25인 로스터에서 제외하고 다른 구단이 데려갈 수 있도록 비공개로 방출을 공시하는 절차.

펠프리는 전날 볼티모어전에 선발 등판, 5이닝 1실점으로 호투하는 등 시범경기 4게임(2경기 선발)에서 평균자책점 1.29로 쾌조의 컨디션을 자랑 중이다.

반면 박찬호는 3경기에서 평균자책점 8.68, 또 다른 5선발 후보인 애런 실리도 4경기에서 평균자책점 7.82로 부진하다.

'뉴스 데이'는 메츠가 1년간 60만달러에 계약한 박찬호를 웨이버 공시하고 다른 구단이 박찬호를 데려가는 상황이 벌어지면 메츠는 박찬호에게 20만달러를 지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는 상대적으로 '싼 값'이라고 분석하기도 했다.

박찬호는 기본 연봉 60만달러에 투구 이닝이 190이닝을 넘으면 보너스로 240만달러를 받는 메이저리그 계약을 했다.

그러나 실리는 메츠와 마이너리그 계약을 했고, 그가 5선발에서 탈락하더라도 메츠는 조건 없이 그를 '보험용 선수'로 마이너리그로 보낼 수 있어 선수 활용이 훨씬 수월하다.

박찬호의 슬러브(슬라이더+커브)에 반한 윌리 랜돌프 메츠 감독이 그를 불펜투수로도 기용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도 있어 박찬호가 웨이버 공시될 가능성은 낮은 편이나 펠프리가 승승장구하면서 메츠의 투수진에 잔류하기가 쉽지 않은 것은 분명하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진민호 무실점 쾌투

KIA, 삼성과 시범경기 3-2 승

KIA가 2년차 진민호의 '깜짝 호투'를 앞세워 지난 시즌 우승팀인 삼성을 제압했다.

KIA는 22일 광주구장에서 열린 시범경기 5차전 삼성과의 경기에서 선발 진민호의 무결점 쾌투에 힘입어 3-2로 낙승했다. KIA는 이날 승리로 시범경기 2연패 뒤 3연승을 이어갔다.

지난해 1군에서 불과 4.2이닝만을 던졌던 진민호는 4이닝동안 3피안타, 1탈삼진, 무실점으로 삼성타선을 꽁꽁 틀어막았다. 이어던진 이동현(2이닝 1피안타, 1탈삼진)과 박정태(0.1이닝 무안타)도 무실점으로 잘 던졌다.

KIA는 5회 2사 만루에서 홍세완이 임창용으로부터 밀어내기 볼넷을 골라 선취점을 올렸고, 8회에는 래리 서튼의 2루타와 조경환의 적시타 등으로 2점을 추가했다.

KIA는 그러나 마지막 투수 김희걸(2.2이닝)이 3-0으로 앞선 9회초 2사 후 삼성 조영훈에게 2점 홈런을 내줘 아쉬움을 남겼다.

이밖에 한화는 장단 11안타를 몰아치며 두산을 8-2로 꺾었고, 사직구장에선 운영난에 빠진 현대가 4연승을 달리던 롯데를 3-1로 눌렀다. SK는 LG와의 맞대결서 1-0으로 승리하며 4연승을 질주했고, LG는 5연패의 늪에 빠졌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황제들의 만남'

테니스 1위 로저 페더러
우즈 연습 골프장 방문

우정을 쌓아가고 있는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미국)와 '테니스 황제' 로저 페더러(스위스)가 또 조우했다.

작년 9월 US오픈테니스 결승때 우즈가 페더러의 경기장을 찾아 즐거운 시간을 보냈지만 이번에는 페더러가 우즈를 찾아왔다.

페더러는 22일(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의 도랄리조트 골프장을 방문, 우즈가 하는 연습 라운드 후반 9홀을 따라다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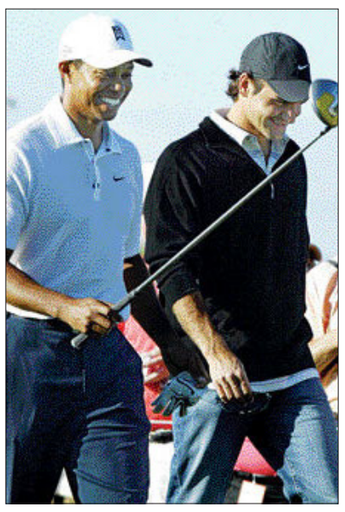
페더러도 처음에는 갤러리 틈에 섞여 구경했으나 알아보는 팬들이 사인 공세를 펼치자 우즈가 요청, 대회 주최측의 '특별 배려'로 갤러리 통제선 안으로 들어가는 대우를 받았다.

AP통신에 따르면 우즈는 "세계 최고의 플레이어 가운데 한 명이 갤러리 중에 있다는 것은 정말 굉장한 일"이라면서 페더러의 우정에 화답했다.

페더러도 "오랜만에 세계 최고 골퍼의 샷을 직접 봤다. 축구장에서 경기를 관람하거나 테니스를 보는 것과는 정말 다르다"면서 "(우즈는) 하도 볼을 세게 쳐서 시야에서 금방 사라진다. 볼을 따라잡기가 힘들다"고 혀를 내둘렀다.

둘은 18번홀 그린 옆에서 기자들의 사진 촬영 요구에 포즈를 취했다.

'황제 대 황제'중 누가 더 세인의 관심을 끄느냐는 질문에 우즈는 은근히 자존심을 내세웠다.



22일 테니스 세계 1위 로저 페더러(오른쪽)가 미국 마이애미에서 세계골프선수권대회 최종 훈련을 실시하는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와 함께 코스를 걸으며 담소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우즈는 "글쎄다. 세계적으로 따지자면 나도 잘 모르겠다. 하지만 미국으로만 놓고 보면 페더러보다 내가 더 인지도가 높지 않을까 싶다"고 대답했다.

페더러에게는 둘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한 질문이 던져졌다.

페더러는 "라운드 후 언론을 대하고, 연습 때나 경기 때 팬들이 따라다니고, 팬들이 사진과 사인을 원하고, 보안이 필요한 것은 나랑 같은 점"이라고 말했다.

페더러는 "다른 점은 내가 하는 매 포인트샷에 관중은 함성을 질러대지만 우즈가 치는 모든 샷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다"고 비교했다.

이승엽 2경기 연속 무안타

이승엽(31·요미우리 자이언츠)이 2경기 연속 무안타로 침묵하면서 일본프로야구 시범 경기 타율이 0.200(45타수9안타)까지 떨어졌다.

이승엽은 22일 도치기현 우쓰노미야 구장에서 벌어진 도쿄 야쿠르트 스왈로스전에 1루수 겸 4번 타자로 선발 출장했으나 3타수 무안타에 머물렀고 7회 초 수비부터 투수 마에다 유키나카로 교체됐다.

이승엽은 2회 첫 타석에서 상대 좌완투수 이시카와 마사노리의 초구를 건드렸지만 중견수 뜬공에 그쳤다. 4회 무사 2루에서도 초구를 때렸지만 결과는 2루 땅볼.

6회 2사 1루에서는 유격수 땅볼로 아웃되는 등 좀처럼 타격감을 찾지 못하는 모습이었다.

이병규는 이날 기후현 기후구장에서 벌어진 히로시마 도요 카프전에 중견수 겸 톱타자로 선발 출장, 3회 중전 안타를 생산했다. 1회 2루 땅볼로 물러난 이병규는 0-3이던 3회 1사 1,2루에서 중전 안타로 만루 찬스를 이어갔고, 주니치는 후속 이바타 히로가즈의 3루 내야 안타로 득점에 성공했다.

이병규는 유격수 땅볼(5회)과 삼진(7회)으로 경기를 마무리했다. 시범 경기 타율은 0.146.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황홀한 아이스 댄싱

22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세계피겨스케이팅선수권대회 아이스댄싱 부문에 출전한 캐나다의 마리에 프랑스 두브레이(왼쪽)와 패트리스 라우존이 환상적인 연기를 선보이고 있다. /연합뉴스